

고 소 장

고소인 : 곽흥근(370525), 곽춘규(630225)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1 102호

전화 : 010-3737-7004

피고소인 : 김진욱 (전 공수처장)

<사건 개요>

대법원 판례 후에 새로 생긴 살인사건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살인사건이 생기기 전의 공람종결과 똑같이 처리하여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위반 했을 뿐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공수처법 남용, 근무 태만으로 인한 예산손실죄 등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전 공수처장 김진욱을 고소합니다.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

17년 동안 위법한 판결을 받고 집과 땅을 빼앗겨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위법한 판결의 핵심 내용인 기존의 교통법규를 적용한 사륜오토바이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가 생성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오토바이에 준해서 처벌받은 사륜 오토바이가 일반적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농기계에 준한다고 새롭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청에 새로 고소장을 제출 했는데, 그 후 3 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가 빼앗겼던 봉평 집을 경매받았던 나즈코과 그 집을 관리하던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판사들이 개입된 **법조 사조직**의 일원으로 그들의 판결범죄 물건들을 처리하여온 나즈코과 그 사위가 죽은 것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로 판결범죄가 들통 내려 하자 장물 아비격인 이 두 명을 제거하여 꼬리짜르기 식으로 약탈 판결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십년 함께 하며 수족같이 부리던 장물아비들을 살해하여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살인사건**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으로, 이 범죄 내용을 김진욱 전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수처는 이런 사실을 유기, 은폐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공람종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새롭게 생긴 살인사건**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은폐하고 기존의 공람종결 부분 만으로 기각시킨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수처법 위반인 것입니다. 더하여 국고 손실죄, 예산남용죄등 가능한 모든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혼자남은 딸 (낙찰자 나즈코의 딸) 은 땅을 4등분하여 따로따로 판매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이 **판결약탈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어 판매한 것은 장물인 저희의 집과 땅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이 장물이란 사실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오자, 위기를 느낀 **불법적 판사조직**은 그들의 범행이 탄로 나는 것을 막으려고, 수십 년 동안 부려 먹은 장물아버지들인 나조과 그 사위를 살해하여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또 혼자 남은 딸은 이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저희가 재산을 찾는 것을 어떡해서든 방해하려고 땅을 4 등분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오랜 억울함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결국에 병이 생겼고, 위암 말기로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투병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다며 저를 독촉하고 계십니다.

검사님, **한 생명의 모진 고난과 투병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김진욱 (전 공수처장)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시어 **대한민국의 법치에 새 이정표**를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거목록

1. 김진욱 공수처장에 올렸던 고소장과 증거서류들

서울 중앙지검장 귀중